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9 2022. 5. 18. Wed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방미향 편집장 정우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2 보도
성결교회 역사자료
기증식



5 취업
2022년
최신시사 이슈



6 사회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뽀박질



14 오피니언
편집장노트
-人間失格

활기를 되찾은 교정,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지난 3월 31일 진행된 동아리 연합회 주관 동아리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본교에 소속된 각 동아리들이 학부 신·편입생 및 동아리를 가입하지 않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를 진행하는 행사다. 27개의 동아리와 본교의 홍보대사 '블루인', 동아리 연합회까지 총 29개의 부스에

서 간단한 게임이나 즐길거리, 행사 등을 진행하며 학우들에게 각자 동아리 및 기관을 소개한다. 부스 운영 외에도 공연이나 펀치 기계,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사 또한 동시에 진행됐다.

코로나 시작 이후 학과와 학년, 학번과 관계 없이 처음 진행된 완전 대면 행사로서 학

우들의 각광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이나 참여를 위한 사전 예약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 전이나 쉬는 시간에 짧게 즐기러 나온 학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제38대 사계 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호민 학우(산경 17)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동아리 박람회에 대해 "2년만에 진행한 대면행사라 격

정도 많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제시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부스 지킴이들과 재밌게 즐기는 학우들을 보니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본교 총학생회

미리보기

"너 몇살이야?"
만 나이 통일, 어떻게 생각해?
<7면에 계속>



신속 정확 디지털 사회,
'드림의 미학'을 잇는 사람들
<8면에 계속>



여기 뭐 할 거 있선?
- 잠실역
<10면에 계속>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뜻을 펼쳐 주세요!
성결대 학보사는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jelly1110@sungkyul.ac.kr
H.P | 010-8936-8159
office | 학생회관 223호

성결교회 역사 유물 도서 기증식



한국성결교회는 문서선교에 독자적인 행보를 한 교단이다. 교단 특성을 담고 있는 문서와 도서를 발행하여 교단 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교단(교회)이 설립(1907.5.30)되기 3개월 이전인 1907년 2월에 성결교회 전용 전도지를 발행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직접전도현장에서 사용하였다. 이 전도지가 '탕자의 회개'라는 한한병용 한 장 짜리 푸른 빛깔의 전도지이다. 그러므로 한국성결교회는 설립 이전부터 문서선교가 시작된 교단이다. 두 번째 한국성결교회 문서 선교물품은 1907년 11월에 발행하여 한국성결교회 전용 찬송가로 사용한 '복음가(Pok Um Ka)'이다. 이 '복음가'는 이후 증보하여 '신증 복음가'로 1919년과 1924년에 각각 발행하였으며, 1930년에는 '부흥성가'(HOLY REVIVAL HYMNS)라 명명하고

14편까지 발행하여 성결교회 전용찬송가로 사용하였다. 현 개정개역찬송가에도 이 복음가(부흥성가)에 실렸던 곡들이 50여 곡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전체 곡 중 성결인들의 번역과 작사와 작곡한 찬송곡들이 102곡(혹은 103곡) 실렸다. 대부분 은혜로운 집회 찬송은 한국성결교가 번역한 복음가와 부흥성가 곡으로 부르고 있다). 세 번째가 1910년 4월 발행한 '부표관주신약전서'이다. 이 성경은 한국성결교회 전용으로 사용한 사중복음 관련구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표를 사용한 한국교회 최초의 부표와 관주 성경이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독특한 문서선교물품은 한국성결교회가 자긍심 있게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이번 성결한 교회(담임 김경수 목사 시무)가 성결대학교에 기증하는 두 권의 물품은 한국성결교회 전용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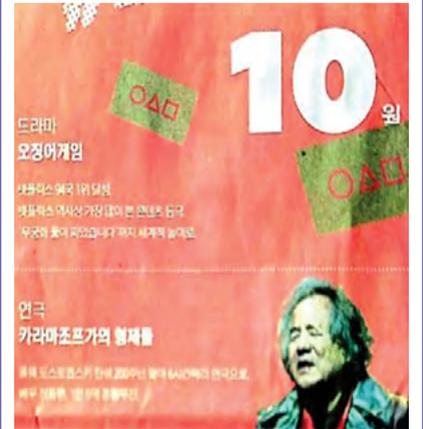
용했던 '부흥성가(1937)'와 '부표관주신약전서(1925)'이다.

임흥근 목사 또한 이번 기증식에서 다양한 도서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Praktische Theologie 1, 2 (1918) ▲Die christliche Lehre von Gott : Dogmatik Band 1 (1953) ▲Die christliche Lehre von Gott : Dogmatik Band 2 (1950) ▲OMHPOYAIANTA. H. E Homeriopera omnia 1 (1759) ▲OMHPOYAIANTA. H. E Homeriopera omnia 2 (1760) ▲국어국문학 관련 자료 등이 있다. 다양한 자료를 기증받음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행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멈추지 않는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가까이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김경수, 임흥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연극영화학부 나진환 교수, 연이은 수상



연극영화학부 연기예술전공, 나진환 교수(극단 피악PIAC 상임연출)가 연출·제작한 6시간 공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2021년, 조선일보 올해의 순간 21, 연극부분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엔 제8회 러시아 스톨렌스크 국제연극제, 스톨렌스크의 방주에서 나진환 교수 연출작, <톨스토이 참회록, 안나 카레니나와의 대화>(Tolstoy Confession, Conversation with Anna Karenina)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고전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연출력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톨렌스크 국제연극제는 러시아에서 권위 있는 국제연극제 중 하나로, 코로나로 영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나진환 교수의 연이은 수상 소식은 국제적으로 성결대학교를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영화학부 연기예술전공을 국내외에 크게 알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연극영화학부 거리극, “<위대한 쇼맨> :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난 4월 27일 본교 연극영화학부 연기예술전공 1학년 학생들은 <위대한 쇼맨> : 당신은 누구입니까? 거리극을 진행했다. 이는 영화 <위대한 쇼맨>을 모티브로 해 본교 학생들만의 이야기로 재탄생됐다. 이날 거리극은 영화의 OST인 ▲This is me ▲The greatest show ▲Come alive 순으로 진행됐다. 'This is me'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각자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방향을 하지만 점차 '나'라는 사람을 깨닫고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았다. 'The greatest show'는 10인의 서커스단이 힘들었던 과거를 쇼를 통해 극복하며 걱정은 접고 두려움은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Come alive'는 화합을 통해 서



로에게 용기를 주며 빛나는 새 삶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거리극은 성결대학교 연기예술전공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연극영화학부 제공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SW 마에스트로 13기 최종 선발

본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우태균 학생(17학번)이 지난 4월 8일 SW 마에스트로 13기에 최종 선발되었다.

SW 마에스트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SW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2,024명이 신청하였으며, 우



태균 학생은 두 달 동안 진행된 서류, 코딩 테스트와 심층면접 등을 통과하여 320명의 최

종 합격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 앞으로 우태균 학생은 6개월간 연수교육

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SW개발/법률/컨설팅 전문가들로부터 주 2회, 월 4회 이상의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매월 100만원 지원금, 200만원 상당의 IT기기 구입비 지원,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특허/창업 지원, 24시간 개방형 학습 공간 제공, 기타 사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SW마에스트로

“청춘의 한가운데서 다시 만난 우리” 2022 해오름식

지난 4월 6일 본교 기념관 5층 대강당에서 각 기관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 본교 학생회의 새로운 시작과 출범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사인 해오름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총장님의 축사, 학생지원처장님의 환영사, 총학생회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시작됐으며, 각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한 후 ▲세인트 ▲소리하나 ▲페가수스 ▲흑심 등의 동아리에서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그 후 부총학생회장을 필두로 학생회 출범 선언이 있었으며, 기수단의 입장 또한

진행됐다.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회의 역할과 그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손수빈 학우(정통20)는 “출범선언문에서 약속한대로 학우들을 위해 봉사할 학생회 및 기관들에게 기대가 크다. 대면으로 바뀌면서 정신없는 한 해가 되겠지만 학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본교 총학생회 SNS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1 유형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2 유형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2022학년도 기초글쓰기 교강사 워크숍 개최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에서는 2022년 5월 4일 기초글쓰기 담당 교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1) 기초글쓰기 교재 출판 계획과 2) 수업계획서 통합 운영 및 3) 인 증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4) 2022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모집 협조를 논의하였다. 파이데이아칼리지 학장 박기영 교수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강사 워크숍은 차기 대학역량평가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비를 위해 교양필수 교과목 교육과정 고도화 및 파이데이아학부 교강사의 소통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기영 파이데이아칼리지 학장을 비롯해 4명의 기초글쓰기 담당 교강사와 2명의 행정실 직원이 참석했으며, 정기적인 워크숍의 필요성에 따라 매학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기영 교수는 “파이데이아학부 소속 교강사의 소통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교양교과목의 선진화된 교육법을 공유하고 적극 도입하여 다가오는 시대적 요구 반영에 앞서 준비하는 파이데이아학부로 거듭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파이데이아학부에서의 비교과 운영과 수업 커리큘럼 연구에 기초글쓰기 담당 교수 서로가 함께함으로써 교수간 유대를 다져 고도화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참조 - 본교 홈페이지



안양 고용복지+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팀 Tel. 031-463-3869/3879

지금, 우리 수업은

학기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 본 기자는 학우들로부터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를 입수했다. “강의를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한탄부터 “그 때 강의를 샀어야 했다.”라고 하는 아쉬움까지. 결국 원하는 수업을 못 잡고 선호하지 않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우들을 보며 생각했다. ‘수강신청,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호에서는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강의 매매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다.

삽니다

‘삽니다’를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옷? 물건? 기프티콘? 다 아니다. ‘삽니다’를 검색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강의’다. 이미 등록금을 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강의를 학생들이 사고파는 매매 행위 자체는 매년 벌어지는 일이다. 강의 매매는 특정 강의를 먼저 신청한 후 타 학우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매자가 어떤 강의를 구매하고 싶다고 글을 올리거나, 어떤 강의를 매매한다는 글을 판매자가 올리면 해당 게시글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날짜와 시간을 맞춰 강의를 넘긴다. 금액을 받은 뒤 해당 강의의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구매자가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보통 거래는 다른 학생들이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는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한다. 강의 거래를 위해 매크로 등 프로그램 활용, 인기 강의를 독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 입력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기엔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대전의 모 국립대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해부터 수강신청 전 암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됐지만 매크로 신청이 뿌리 뽑히지 않아 강의 매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수강 정정 기간만 되면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오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삽니다 취소

기글 삽니다
스기.. 제발 꼭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필 하나도 못잡았습니...
03/04 | 익명 0 0

기글 컴코 삽니다...
스기.. 제발 일단 아무 요일이나 날짜 꼭지로 찔러봐주세요ㅠㅠㅠㅠ
03/04 | 익명 0 0

선형대수학 express 책 사요
삽니다... ㅠㅠ
03/04 | 익명 0 0

현기 컴코 5만원에 삽니다
살려주십쇼
03/02 | 익명 0 1

국제정치의 이해
국제정치의 이해 버리시는 분 꼭지 주세요ㅠㅠ삽니다
03/02 | 익명 0 0

사회봉사 1학점 삽니다..
사요...부탁합니다....폴리즈
02/23 | 익명 0 3

디지털디자인 삽니다
꼭지 부탁드립니다
02/16 | 익명 0 0

사복 삽니다.
사회복지문리와 철학 화4-6 신연희 교수님 사회복지 실천론 월4-...
02/16 | 익명 0 1

사복 전공 삽니다..
수요일 1-3 사회문제론, 수요일4-6 자원봉사론
02/15 | 익명 0 0

사복 전공 삽니다..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너무 듣고싶어요.. ㅠㅠ
02/15 | 익명 0 0

어쩔 수 없지만...

< HOT 게시물

익명
02/03 12:25

공감
스크랩

강의 좀 사고팔지 않습니다

급한 줄은 알지만 강의 사겠다, 잡아주면 사려하겠다 이런 글 너무 많이 보이네요

결국 자기가 들을 것도 아니면서 강의 잡아두고 돈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 많아지면 정당하게 수강신청 해서 강의 들을 사람까지 피해 보고 강의 매매가 더 판을 치잖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못잡는다, 안잡는다 해도 강의매매 자체가 불법이 고요

자기 사정이 급하고 백세다고 해서 에타에다 강의 사겠다, 잡아주면 사려 하겠다고 당당하게 글 올리는 사람들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19 16 0

구분 자유 작성자: [] 게시물 번호: []

물지 안팔지도 모르면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죽치고있어서 시간낭비하는것도 자중내세오 한두번이어야지 돈주고사겠습니까 [] 교수님 미시경제학 15만원 그리고 소독세법 20만원에 삽니다. 현재 줄도에서 공부중이고요 만나서 change하고 돈 찾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꼭지로 연락쳐 주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의 매매를 해서 원하는 강의를 사더라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강의 매매는 일종의 ‘취소 수수료’ 느낌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강의를 취소 하더라도 구매자가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학생이 먼저 신청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간혹 몇몇의 판매자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 또한 흔하다. 돈만 받고 강의를 넘겨주지 않거나,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이를 매매하는 경우도. 사기를 당한 구매자는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대상에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따로 신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렵다. 물론 구매자도 강의를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을 도와주게 되면 근절되어야 할 강의 매매를 권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기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강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매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강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학교 측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 강의는 계속 모자랄 것이고, 졸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강의나 전공 등의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매매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언제까지 이럴 건데?

비단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강의 매매는 단순히 강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새 학기만 되면 벌어지는 수강 경쟁과 이를 용돈 수단으로 악용하는 ‘강의 매매’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지만 대학들은 속수무책이다. 개인 간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제할 수 없고 수강신청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뾰족한 예방책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타 사립 대학에 재학 중인 B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강의인데 신청을 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강의를 사는 학우들도 있다. 학교에서 수강신청 인원을 충분히 배정해 주거나 강의를 늘려 준다면 강의 매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교 측도 강의 부족 현상에 대한 입장은 있다. 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런 강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해 “이전까지는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강의 매매가 많아지면서 이번 학기에는 해당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강신청을 못할 시, 차선책으로는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당 과목 증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모든 강의실은 학생 수용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교원 또한 한정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수님께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제시된 해결책조차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가 내놓는 입장은 보여주지 식일 뿐이고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강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학교가 외면하면서 수강신청 전쟁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경희대학교 김중백 교수는 “대학 평가 때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중요한데 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몇몇 대학은 강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라며,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찾다 보니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가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대학이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대학의 평가가 낮으면 학생들에게 할 발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학교 또한 하나의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평가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대학에 온 학생들에게 적어도 듣고 싶은 강의를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대학의 몫이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본교 에브리타임, 스냅타임, 조선일보, 세계일보
[참조] 스냅타임, 중도일보, 아시아경제

2022년 최신시사이슈

시사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면접이나 인적성 대비를 위해 대입 준비, 공기업 면접 준비, 시사 경영 상식 관련 출제 문제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 꼭 숙지해야 하는 항목이다. 취업생이라면 취업을 위해 시사각각 발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시사를 익히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뀌는 시사 이슈에 대해 놓치지 않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2022년 꼭 알아둬야 할 최신 시사 이슈를 살펴보자!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예산, 적자국채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원으로 발행되는 공채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이후 다섯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세수는 전년도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어 일부 자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비율을 상승시키고 국제시장 내 공급 부담을 가중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지원되는 모든 국가제도가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다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가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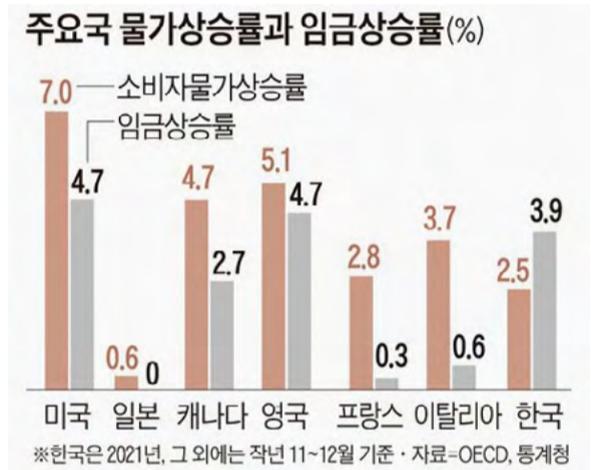
#ESG 경영, 기업의 변화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

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투자시사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만을 판단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위 요소들을 반영해 기업의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집중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과 투명한 경영 방식에 초점을 맞춰 기업 제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크루플레이션



스크루플레이션이란 돌려 조인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이다.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시장과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켜 경제 붕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제로금리를 만들어 가까스로 막

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전문가는 금리 인상, 환율 인상, 물가 상승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면 심각한 경제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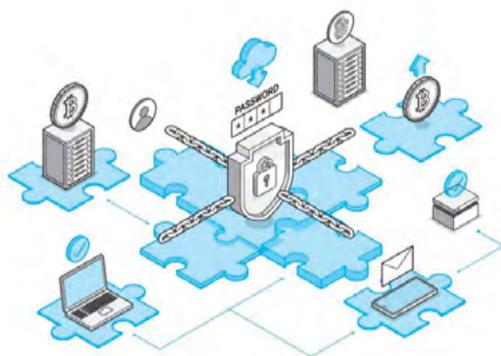
#정보전염병, 인포데믹

인포데믹이란 '정보'를 의미하는 'Information'과 '유행병'을 의미하는 '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려우며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포데믹에 맞서 국제 팩트체크 기관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는 100곳이 넘는 세계 팩트체크 기관과 연합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및 가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WHO는 EPI-WIN이라는 정보 플랫폼을 온라인상에서 운영해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 조작 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없게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신뢰도 높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 조작 정보를 뒤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제3의 사실확인 기관과 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i5216@sungkyul.ac.kr
 사진 - 이코노미리뷰, 조선경제, 시사오늘
 [참조] 연합인포맥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월간지

다 같이 자취하자! 정보화시대 편

정보화 시대에서 컴퓨터를 통한 업무 처리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제는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된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 정보화 시대를 위한 IT 자격증 Top5를 알아보자.



1.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는 컴퓨터 지식 및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IT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2.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사무 자동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유지 ▲관리 ▲개발 ▲운영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산업경영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 처리용 컴퓨터 및 컴퓨터 통신의 운용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무자동화 실무, 즉 응용프로그램, 사무자동화기기 및

뉴미디어 터미널 등의 사무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사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관공서 ▲공공단체 ▲일반 기업의 전산실 ▲전송실 ▲통제실 등에서 사무자동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정보보안기사

정보 보안 이론 및 지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개발 ▲운영 ▲관리 ▲컨설팅 ▲평가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 시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 인력으로 인정되며, 감리원 자격도 인정된다. 보안 기사는 일반적인 IT 학과에서 배우는 수준 이상의 보안 지식을 요구한다. 보안을 4년 공부하고 나오더라도 실무에서 이해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또한 매 회차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 자격증과 결을 달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적용돼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지닌 타 경쟁자와 견주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및 실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4. 네트워크 관리사 1급

네트워크 관리 지식 및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운영 ▲구축 ▲분석 ▲설계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사는 한국 정보통

신 자격협회에서 시행하는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는 서버를 구축하고 보안 설정, 시스템 최적화 등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력에 대한 자격이다.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2급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지만 1급은 등록 민간자격이다.

5. 빅데이터 분석 기사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분석 방법 기획 ▲자료 수집 ▲분석 결과 시각화 ▲분석 결과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와 기업의 주요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각 자격증의 응시 자격과 시험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IT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친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i5216@sungkyul.ac.kr
 [참조] 자넷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뗏박질

2022년 상반기부터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 이슈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청원을 통해 법안을 개정하고 만들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이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어떤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지 이번 호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김해보자.

#벗꽃이 아닌 불꽃이 퍼지다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달로 많은 사람이 따뜻한 온도와 곧 마주할 벚꽃을 기대하며 설렘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국민들은 벚꽃이 아닌 불꽃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 ▲영월 ▲동해 등 전국 8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봄이 되며 건조해진 날씨와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기온을 타고 산불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통해 번져나갔다.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구역은 울진 3240ha, 삼척 60ha 등으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피해 규모의 산불 사건으로 기록됐고 전국 단위로



로 처음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사건이 됐다. 이처럼 큰 규모의 산불인 만큼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그렇다면 이번 산불 사건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강릉에 고의로 산불을 지른 방화범의 진술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오랜 기간 동안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방화를 범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진술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만약 사실이라도 방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모두의 자산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적 감정으로 인해 시작된 불씨는 소나무의 송진 가루에 있는 휘발성 물질로 인해 불씨의 크기는 점점 커지며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장장 213시간의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로 인해 인근 지역의 통신 장애도 일어나며 주민들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했고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관과 산림청 관계자들은 밤낮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지칠 줄 몰랐다. 온 국민은 자원봉사와 소방관들을 위한 무료 식사, 기부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이끌고 온종일 고생했다. 10일 동안의 산불 진압 사건은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피어난 불꽃이 사람들의 이타심으로 사그라지는 과정이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2019년에 발생한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을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며 사건이 재조명됐다.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은 피해자 윤씨가 그의 아내 이은혜와 친구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3m 깊이의 폭포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한 사건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기관은 윤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밝히며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지인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은혜에 대한 의문점을 조사하던 중, 사건의 단서 및 정황이 방송을 타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망 무렵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장기 매매를 알아볼 정도로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상황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다니며 풍족한 삶을 누렸고, 윤씨에게 생활비를 주는 대신 보험료를 연체하면서까지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여러 개의 사망 보험을 유지했다. 그의 사망 보험금은 총 8억 원으로 큰 금액이었으나 수혜자는 모두 이은혜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과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이 사건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 결과 이은혜는 윤씨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그의 소득 대부분을 가져갔고, 필요할 때만 찾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정황과 예전에도 살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은혜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기에 맞춰 복어 독을 음식에 넣어 윤씨가 먹게 하고, 그녀의 전남편 2명 모두 사망 당시 이은혜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만 교통사고와 스노클링으로 의문사 당했다. 사망 원인은 전부 달랐지만 남편의 보험금 모두 이은혜가 수령했다는 점이 공통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 가평 익사 사건 또한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이은혜와 불륜 관계였던 조현수 또한 가평 여행에 함께 가



서 살인을 동조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둘은 여행을 즐겨 다니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보험금 수령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악마 같은 행동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2차 조사를 받기 전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주를 하며 사건의 크기가 더욱 커졌다. 도주한 그들을 약 3개월 동안 검거하지 못했는데, 사건의 진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공개수배를 내렸고 이후 공개수배가 떨어진 지 17일 만에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그들을 검거했다. 가스라이팅과 여러 차례의 살해 시도,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획범죄 등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그녀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길 바라며 죄에 합당한 처벌과 그만큼의 반성을 하길 바란다.

#고통에서 꺼내주세요

작년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정인이가 사망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들은 입양된 아이의 복부를 배로 차고 아이를 방치하는 폭력을 행사하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기에 최근 양모의 형벌은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아동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져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99%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



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의로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이 사망하게 될 시, 살해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법정 형량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갖는다. 또한 아동학대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 및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가해자에게 부여되며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랐지만, 조카를 물고문한 사건, 2주 된 영아를 폭행한 사건 등 최근에도 여전히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대가 의심될 시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학대 피해가 분명하고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등 법안이 안정적으로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안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주위 사람들과 유기성을 보이는 존재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해결은 못 해줘도 도움이나 경청은 해줄 수 있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는 대상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고의로 벌어지는 악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무섭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로 파악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범죄 및 안타까운 사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가 어두운 내용의 소식보다 밝고 희망찬 소식으로 가득한 나날들로 가득하길 고대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도리를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스1 / [참조] 중앙일보, 산림청, 경향신문

기/자/담/판

“너 몇살이야?” 만 나이 통일, 어떻게 생각해?

1962년 만 나이가 도입된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관습.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새롭게 교체된 정부에서 펼쳐질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 방안, 이번에는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만 나이 통일, 어떻게 생각해?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가수 싸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나이가 3가지나 된다. 한 해 중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 나이’는 45세, ‘만 나이’는 44세, ‘세는 나이’는 46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렇듯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셈법이다.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역법 등에서 적용한다. ‘세는 나이’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셈법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는 나이를 많이 쓰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 개인마다 다른 생일을 각각 계산해 특정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취학과 징병, 복지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갈등이나 혼란의 씨앗이 된 일이 왕왕 있었던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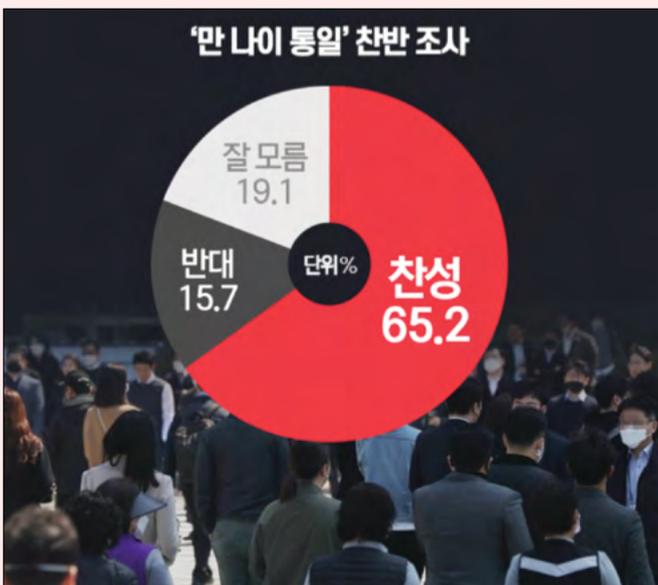
가장 가깝게는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도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만 나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만 12세라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생일 전인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해묵은 이슈’인 목욕탕 출입 나이 역시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만 5세에서 1년 낮춘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나이 해석 때문에 대법원판결까지 간 사례도 있다.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된다’고 한 부분을 놓고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결국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 이렇듯 법마다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만 나이 통일은 셈법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던 우리들에게 편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사회 관습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다르게 쓰는 특정한 행정 절차에서만 주의한다면 큰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만 나이 통일이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세는 나이로 형·동생을 정하는 일상의 시간관념까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착까지 인식 개선 문제 등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나이 통일을 위해 법령마다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빠른 연생의 문제는 연 나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만 나이까지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만 나이가 도입되면 학교 입학 시기를 놓고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만 나이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과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만 나이를 쓰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어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잘 없다.

또한 외국은 나이가 달라 호칭이 달라지지 않아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지만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만 나이의 성급한 통일은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한국 사회가 정서적으로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만 나이 통일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칠순이나 팔순 등 나이를 세는 용어도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태어난 해를 대표하는 ‘띠’도 세는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등 나이와 관련된 관습도 적지 않다. 사적으로 만날 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형·오빠·누나·언니 등의 호칭으로 서열을 나누는 게 익숙할 정도로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돼 왔던 게 현실이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생일을 기점으로 서열이 정해질 수 있어 기존 대인 관계에서 호칭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길을 쫓을 때 미터법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야드나 인치 등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통용돼 온 관성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식 태양력이 채택됐지만 여전히 절기 등에서 음력을 고집하는 것도 비슷한 예”라고 말했다.

게다가 만 나이 도입의 경우 이미 60년도 더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만 나이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이를 ‘강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 나이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이나 여러 홍보 수단을 이용해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 시스템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법·행정적으로 통용되는 나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사회적 나이’를 오랜 시간 사용해 왔다. 결국 법을 제도화 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할 것인가? 처벌이 없다면 어떻게 강제성을 두고 어떻게 통일하는 과정을 이룰 것인가? 아울러 쪽 유지시켜온 문화를 굳이 외면할 만큼 이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면 그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과연 만 나이 통일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노하은 기자 dmisu7226@sungkyul.ac.kr
 사진 - 뉴스웨이, 게티이미지뱅크
 [참조] 뉴스웨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신속·정확 디지털 사회, '느림의 미학'을 잊은 사람들

시간은 금이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오직 시간만이 금일까? 이번 호에서는 대다수가 잊은 느림의 미학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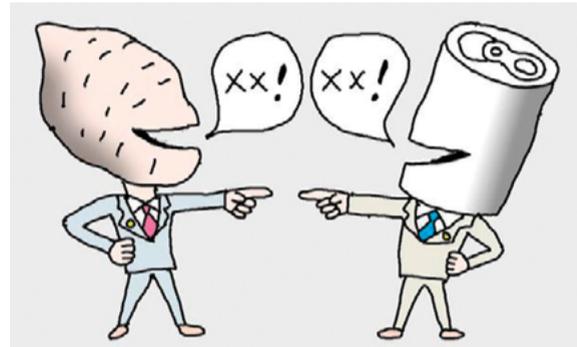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다. 현대 사회는 3g와 4g의 과도기를 거쳐 5g시대에 도래했다. 이제는 돈이나 농작물보다도 정보의 양으로 빈부를 따지는 것이 현실이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한다. 예컨대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유튜브나 OTT 플랫폼의 동영상상을 배속 재생해 듣기도 하고 ▲긴 문장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골라 보기도 하며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10초 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기도 한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배속해 듣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을 단축하거나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다. 이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로 '닷엑스(X)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여기서 닷(.)은 닷컴(.com)을, 엑스(X)는 몇배속을 뜻한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압축해 설명해 주는 이른바 '요약 유튜브'의 역할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긴 분량의 ▲영화 ▲드라마 ▲책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보고 들으며 스스로 판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장면을 엮어 전체적인 흐름과 결말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신속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미학으로 뽑는 현대인들은 이제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빼앗겨버렸다. 재미있는 영화들을 홍보를 위해 개설된 유튜브 댓글에는 '그래서 결말이 뭔가요', '결말 스포 해 주실 분ㅠㅠ'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때 절대 금기로 여겨지던 스포일러가 이제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고마운 행위가 된 것이다.

이야기 전개에서 '고구마'를 참지 못하고 '사이다'만 원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고구마와 사이다는 2015년 커뮤니티에서 생겨난 용어로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막히고 사이다를 먹으면 뺨 뚫린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이 전개되는 부분을 고구마,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이다라고 표현하며 ▲사이다 캐릭터 ▲사이다성 발언 ▲사이다성 행동 등에 열광해 왔다. 문제는 지나치게 사이다만을 원하는 독자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연재 중인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시원한 전개를 강요하는 댓글을 심심찮



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구마 전개가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게시한 작가도 있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죽도록 고생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야기 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말에 동의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 주인공의 서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길고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빠름'의 경향은 이제 그들을 넘어 사회 전체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빠른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신속함이 야기하는 결과, 성인ADHD?

빠르고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원하는 태도가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사람들은 홀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을 보며 '또 시작이군'이라고 생각해 흥미를 잃을지도 모른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배속 재생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서론이 길고 무의미할 경우 기다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넘쳐나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집중력 부족 및 과집중과 같은 ADHD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길고 지루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대다수의 정보를 전부 빠른 속도만으로 시청한다고 하면 이제 내



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길게 보는 걸 못 버틴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성인 ADHD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영상을 빠르게 보는 시청습관으로 인해 ADHD증상이 발현되고 충동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속재생 습관은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부작용을 일으킨다. 배승민 교수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식의 미숙한 의사소통 패턴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대인 관계는 1.5배속, 2배속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배속재생으로만 듣던 A씨(20)는 "사람들의 말이 슬로우 모션처럼 들려 답답하다"며 "다른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성인ADHD, 날날이 파헤쳐 주마!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경발달장애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성인ADHD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증상이 완치되지 않아 생기는 후유증이다. 흔히 성인이 된 후 급격하게 떨어진 집중력에 ADHD가 생긴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한경호 원장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ADHD는 없다"며 "과거에 ADHD로 진단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경우를 성인ADHD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경호 원장에 따르면, ADHD는 아직까지 특정 요인이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 타고난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 중 타고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서 뇌의 다양한 ▲신경생리학적 ▲생화학적 ▲해부학적 변화를 가져와 ADHD가 발병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흔히 ADHD를 말하면 공격성 있는 어린 아이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성인 ADHD는 최근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ADHD 환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상 그룹에서는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낮은 치료율이다. 한국의 성인 ADHD 유병률은 1~5%까지 다양하게 보고된다. 약 4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성인이 ADHD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실제 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8214명에 불과했다. 치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의미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리 알고 대비하자! ADHD 자가 진단 테스트

이처럼 성인ADHD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거슬리는 증상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ADHD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과도 결부돼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공존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방치할 경우 특유의 충동성이 커지면서 감정조절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속&정확'과 '뎀 수

없는 사이인 우리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ADHD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 봤다.

1. 부주의한 행동

- ☑ 업무/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집중이 어려움
- ☑ 대화할 때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함
- ☑ 학업/업무/잡일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
- ☑ 반항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 못함
- ☑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 못함
- ☑ 학업/업무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싶어하고 저항함
- ☑ 직장/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잘 분실함
- ☑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짐

부주의 증상은 위 9개의 증상 중 6개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부주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학업이나 업무 등의 활동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 과잉 행동

- ☑ 손발을 가만 두지 못하거나 앉아서도 다리를 안절부절 못함
- ☑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거나 좌불안석이 됨
- ☑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놀지 못함
- ☑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함
- ☑ 지나치게 수다스럽고 말이 많음
- ☑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함
- ☑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 ☑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함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은 위 증상 중 6개 이상이 6개월 간 평균 발달 수준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집중력 장애

- ☑ 말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움
- ☑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 ☑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끝 마치기 어려움
- ☑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도중 쉽게 주의가 분산됨
- ☑ 정밀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 ☑ 조심성이 없어 실수를 자주 함
- ☑ 지속적인 정신력을 요하는 작업을 피하거나 싫어함
- ☑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함
- ☑ 불필요하게 끝없이 걱정함
-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함
- ☑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함
- ☑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하고 답답함

집중력 장애 증상은 위 증상 중 6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인ADHD의 증상은 대체로 계획한 일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거나 어떤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불안증이나 우울증 혹은 조울증에서도 쉽게 보이는 증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인

다고 해서 성인ADHD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ADHD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등 다른 정신과적 문제를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의 자가 진단 테스트는 참고용

으로 사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잊지 말자, 너림의 미학



성인ADHD를 확진하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별검사 ▲증상의 심각도 검사 ▲양육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검사 등이 있을 뿐이다. ▲뇌파검사와 ▲종합 심리검사 또한 사용하지만 ADHD 확진 검사가 아닌 진단에 도움을 주는 용도다. 그렇다면 성인ADHD를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까?

ADHD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감이 예민하고 감각적인 자극에 잘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져 ADHD 발병을 촉진시키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예방법은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충분한 휴식이다. 우리가 여가를 위해 ▲게임 ▲검색 ▲대화 등을 할 때도 뇌는 쉬 없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단순 오락을 찾는 여



가보다 적극적인 뇌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예컨대 편안한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 등이 그것이다.

ADHD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고 즉각적인 결과만을 원하는 사회, 어쩌면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는 약물과 상담이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서 잊히고 있던 '너림의 미학'이 아닐까?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Shutterstock, FT스포츠, 아시아경제 오성수 작가, 조선일보 김도원 화백, 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조선일보 나소연 작가, 하이닥 [참조] 탐정신경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AP신문, 한겨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성인ADHD연구회, 경향신문, 뇌음향의원, 유린고운심리상담실, 헬스조선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그로우에서 MZ세대 300명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구 환경이 심각하다'고 답한 인원은 90.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응답자는 55.8%로 절반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지구의 날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날인지, 과연 지구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민간운동에서 시작돼 유엔이 정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과는 구분된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과 하버드대학교 학생인 데니스 헤이즈의 노력으로 시작됐다. 한국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구의 날 행사로는 소등행사가 있다. 환경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약 10분간 모든 불을 끄면 된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캠페인이다. 10분간 소등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를 81.9%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소등행사 말고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도 많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

이자는 취지에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오는 등의 노력을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만 해도 연간 10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닐봉지 사용만 줄이더라도 연간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연간 4.3kg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인증마크가 있는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기 등이 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J 올리브영은 사내 라운지 공병 수거와 용기 리사이클링 고객 참여형 캠페인인 뷰티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했고 제주항공은 텀블러와 친환경 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SKC-홈플러스에서는 다회용 장바구니를 증정하거나 나무를 기증하는 등 친환경 소비 클린어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맞춰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지구의 날은 5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지구의 날의 세계 공통 주제는 'Invest In Our Planet'으로 '지구에 투자하세요'라는 뜻이다. 지구를 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환경부 / [참조] 휴넷

여기 뭐 할 거 있선? 잠실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서울 메트로. 역마다 어떤 놀 거리가 있는지 궁금해 만든 대리만족 코너, 여기 뭐 할 거 있선? 이번 호에서는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풍경 좋은 석촌호수까지! 없는 게 없는 잠실역에 가봤다.

잠실에 왔다면 롯데월드를 안 갈 수 없지!



잠실역을 대표하는 장소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데월드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듯 롯데월드는 잠실역에서 내려 5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잠실역의 대표 놀 거리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테마파크 중 하나다.

수많은 놀이기구부터 굶주린 배를 채워줄 다양하고 귀여운 간식들까지! 한 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롯데월드에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겨보자!

귀여운 바닷속 친구들 만나기



시골벽적인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면, 바다 친구들을 만나러 갈 차례! 잠실역 5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안에 있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전 세계 5대양 해양생태계를 재현한 '또 하나의 바다'로 유명하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네이처 존, 라이프 존, 열대우림 존 등 각각의 콘셉트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너무 귀여운 벨루가까지 볼 수 있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다양한 존을 구경하며 바닷속 친구들과 함께 인생 샷을 찍어 보자.

TIP. 네이버 예약을 통해 표를 구매하면 22%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

마음까지 탁 트이는 석촌호수



기분 좋게 바닷속 친구들을 만났다면 탁 트인 강을 둘러보며 산책을 할 차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벚꽃길에 열리면서 석촌호수에는 산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석촌호수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롯데월드타워로 가는 동호,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로 가는 서호로 나뉜다. 산책을 하고 싶다면 동호로, 친구·연인과 인증 샷을 찍고 싶다면 롯데월드가 보이는 서호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석촌호수를 산책하며 잠실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 탁 트인 강을 보며 과제 스트레스를 날려 보자.

볼거리도 먹거리도 너무나 많은 잠실역! 이번 주말, 과제와 시험 스트레스는 모두 잊고 친구·가족·연인과 함께 잠실역으로 봄나들이를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 김채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존엄사,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스위스와 같은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이 존엄사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존엄사는 그 누가 무슨 주장을 해도 정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미 비포 유
개요 ▲멜로 ▲로맨스
편성 2016.06.01
출연 배우 에밀리아 클라크, 샘 클라플린, 매튜 루이스, 제나 콜먼 등

그 여자와 그 남자의 만남

여기 촉망받던 사업가이자 잘생긴 외모, 누구든 친해지고 싶어하는 성격까지 모든 게 완벽한 한 남자가 있다. 바로 영화 ‘미 비포 유’의 주인공 ‘월’이다. 이렇

게 누구한테 꿀릴 거 없이 빛났던 월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돼 버리고 만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월이지만 전신마비 환자가 된 후 월은 삶의 의지를 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월 앞에 엉뚱한 여자 한 명이 나타난다. 쾌활한 성격에 이상한 패션 센스, 과도한 리액션을 가진 괴상한 여자. 바로 영화 ‘미 비포 유’의 또 다른 주인공 ‘루이자’다. 6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잘린 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루이자는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면 도중 6개월 동안 전신마비 환자인 월의 생활을 도와주는 간병인 자리에 취직하게 되며 월과 만나게 된다.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난 월과 루이자. 이 둘은 서로 삶의 이유가 돼 줄 수 있을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루이자는 월이 간병인을 6개월만 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사실 월은 몰락한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고, 곁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월에게 6개월만 자신의 삶에 기회를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루이자는 월이 6개월이 지나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루이자가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불편했던

월은 루이자를 괴상한 여자 취급하며 도통 마음을 열지 않는다.

여전히 까칠하게 루이자를 대하던 월은 어느 날 루이자 또한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호기심 많고 지금보다 더 쾌활했던 루이자는 사실 청소년기 때 또래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차단한 채 도전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인생만을 추구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월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 다짐을 한다.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드디어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생긴 것이다. 그저 가족의 요구로 인해 목숨을 유지하던 그에게 루이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

끝나지 않은 굴레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월과 루이자는 마음을 열며 사랑의 감정을 키운다. 루이자는 월이 존엄사 결정을 반복하기를 바라며 지극정성을 쏟는다. 루이자는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밖에 잘 나가지 않던 월을 데리고 함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여행도 다니며 둘만의 추억을 쌓는다. 루이자 덕분에 월 또한 서서히 예전의 웃음을 찾고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월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고 만다. 존엄사를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루이자가 평생 자신의 곁에서 간호만 하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존엄사에 대해 생각하는 월. 루이자를 사랑하지만 그런 그녀의 곁에서 짐이 돼 버리는 자신의 전신마비 상태가 부끄러워지는 그다. 그런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루이자는 월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미래를 그리길 바란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게 되고, 월은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을 느끼지만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허락을 하게 되는데...

과연 월은 루이자의 바람대로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존엄사 결정을 반복할 수 있을까?

영화 ‘미비포유’는 삶의 살아가는 이유가 없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삶의 목적이 되는 과정을 사랑스럽게 보여준다. 무뚝뚝하고 삶의 의지조차 없던 월의 생활에 발달한 루이자가 스며드는 과정도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다. 또한 그 안에서 존엄사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영화다.



제목 의사요한
개요 ▲드라마
편성 2019.07.19.~2019.09.07
출연 배우 지성, 이세영, 이규형, 황희

저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의사입니다.

만약 인간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생활을 하면서 손이 칼에 베여도, 뜨거운

냄비에 손을 데어도 고통이 없어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드라마 ‘의사요한’의 주인공이자 마취통증의학과 최연소 교수인 ‘요한’은 바로 이런 인간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못 느끼는 선천적인 ‘무통각증’ 환자다. 무통각증인 그가 환자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치료해 주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인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실력 있고 인정받는 출중한 의사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요한은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받은 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만남 들

사정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요한은 매번 교도소에 의무관으로 오는 의사마다 실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교체될 요구해 ‘의무관 킬러’라고 불린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이 교도소에 한 여자가 의무관 일바를 하러 오게 된다. 바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마취통증학과 의사였던 ‘시영’이다. 과거에 의사였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의사 가운을 벗고 백수 생활을 하던 시영은 외국으로 떠나기 전 삼촌의 부탁으로 요한이 지내고 있는 교도소에 하루 동안 의무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그러던 중 교도소에서 갑자기 발생한 위

급상황에 응급처치를 못하고 곤란에 빠진 시영의 곁에 요한이 나타난다. 요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시영은 고마움을 표하지만, 요한은 비꼬듯 말하며 시영에게 타박을 준다. 알바를 끝낸 시영은 외국으로 떠나게 되고, 2년 후 한국에 다시 한세병원으로 돌아와 의사로 복직하게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외국에서 나오던 시영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부딪힌다. 바로 교도소에서 만난 의무관킬러, 요한이다. 요한 또한 시영과 마찬가지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로 복직을 한 것인데... 서로 다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시영과 요한, 과연 이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환자를 살리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같은 이유, 다른 상처

한세병원에 두 명의 위급환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CRPS 환자와 피가 쏟아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CIPA 환자가 동시에 병원에 찾아온 것.

요한은 평소와 다르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환자를 진료한다. 시영은 그렇게 차별했던 요한이 평소와 다르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고, 그의 방에서 요한의 이름이 적혀있는 X-RAY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진다. 그 또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CIPA, 즉 무통각증 환자였던 것. 시영은 그 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요한의 행동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그를 이해하게 된다.

과연 시영과 요한은 존엄사라는 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드라마 ‘의사요한’은 보통 우리가 아는 메디컬 드라마와 다르게 존엄사라는 주제를 통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마취통증의학과라는 공간 안에서 이 존엄사를 가지고 여러 인물이 대립을 한다. 드라마를 보며 각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며 존엄사 논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도 이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는 영화와 드라마를 모두 보면서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존엄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환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올 때면, 존엄사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다가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존엄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만큼 이 존엄사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결론 나지 않는, 아마도 결론 나지 않을 문제가 아닐까? 이번 호를 통해 많은 학우들이 존엄사 논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짜 같은 가짜, 버추얼 휴먼

버추얼 휴먼의 시대가 도래했다. 버추얼 휴먼은 CG로 만든 3D 인간 형상에 AI 기술, 빅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이 더해진 가상의 존재이다. 최근 버추얼 휴먼 로지가 광고계를 접수하고 가요계에 새로 도전장을 내놓았다.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인플루언서 로지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모로 사이버 가수 아담과는 달리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날이 인기를 끌고 있는 버추얼 휴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버추얼 휴먼의 등장

최근 광고계에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AI 기술로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 '로지'다. 로지는 국내 콘텐츠 전문 기업 사이더스 스튜디오 엑스가 탄생시킨 인물로, MZ 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3D 합성 기술로 구현된 버추얼 휴먼이다. 실제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움과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으로 12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로 대기업 광고를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원도 발매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로지와 같은 버추얼 휴먼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메타버스가 있다. 최근 MZ 세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를 공존시키고 시공간을 초월한 3차원적인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확산되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쓰이는 플랫폼이 됐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MZ 세대는 버추얼 휴먼을 가상의 인간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기업이 버추얼 휴먼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기업이 버추얼 휴먼을 모델로 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버추얼 휴먼의 가장 큰 장점은 구설수 위험이 제로라는 점이다. 최근 유명세를 얻기 전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저질러 구설수에 휘말린 스타들이 있다. 이러한 사생활 논란은 그들이 광고하고 있는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값비싼 모델료를 지불하고 인기 있는 스타들을 기용했지만 오히려 계약 문제와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만 낳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버추얼 휴먼의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또한, 버추얼 휴먼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컨디션 난조나 불의의 사고, 외모의 변화 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장면을 CG로 연출할 수 있어 원하는 콘셉트를 자유롭게 만들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람이 아니어서 불쾌해

버추얼 휴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신선한 문화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내세우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소비자도 있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일본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인간이 로봇과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느껴 불쾌한 골짜기에 빠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닮았다면 다시 호감도가 상승한다. 불쾌한 골짜

기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 캣츠가 있다. 분장과 안무를 통해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한 뮤지컬은 흥행을 했지만, CG 작업을 통해 인간도 고양이도 아닌 새롭게 탄생된 캐릭터들은 오히려 관객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혹평을 받았다. 버추얼 휴먼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버추얼 휴먼은 비현실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의 획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성적 대상화나 딥페이크 범죵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위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버추얼 휴먼의 미래



현재 버추얼 휴먼은 고도화된 CG 작업을 통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됐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버추얼 휴먼의 소통 방식은 상대방의 질문에 학습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답하는 수준이지만, 자연어 이해나 대화 처리 등 대화형 AI 기술을 발전시켜 이를 보완한다면 인간처럼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버추얼 휴먼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걱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하며 우리 사회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해 본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로지 공식 인스타그램

[참조] 한국경제



5월, 민주화의 봄을 위해서 싸우다

4월의 벚꽃이 지고 5월에는 캠퍼스의 학생들이 저마다 웃음꽃을 피운다. 하지만 우리의 웃음이 이렇게 꽃 피우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불과 50년도 채 되지 전인 1980년의 5월, 그 해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1980년 5월의 그날'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탄압한 박 정권이 끝났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은 신군부인 전두환 정권으로 정보, 보안, 수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집권적 권력과 '하나회'라는 군부 사조직으로 군권까지 장악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는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지만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확대했으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감시했다. 5월 17일에는 전국 55개 대학과 학생대표 95명을 전국 대학 총학생 회장단 회의 도중에 연행했고, 정부기관, 대학,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계엄군을 주둔시켰으며 대학 휴교령,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등의 포고령 10호를 발령했다.

#모두가 지켰다

학생 유신잔당의 퇴진과 계엄령 해제를 주장하며 4월에는 전국 대학의 학생회가 구성됐다. 이어 5월의 신군부 집권으로 전국 대학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와 전두환 등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며 14일, 15일에는 전국 27곳의 대학 학생대표들이 서울역에 모였고, 지방에서는 24개의 대학 대표들이 모여 시위를 감행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16일 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을 중심으로 대중 집회가 열렸고, 야간에는 평화적인 햇불행진을 벌였다. 그러던 중 17일에 포고령 10호가 발령되며 5월 18일에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

치며 농성을 펼쳤다. 이에 계엄군은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포박하고 연행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잡기 위해 민가에까지 침입했다.

학생과 시민 공동체 시위가 시작된 후 19일, 계엄군은 광주역에 발포를 시작했고 시민들은 금남로에서 차량 시위대를 결성했다. 또한 방송국에 찾아가 광주의 상황 보도를 항의했지만 계엄군은 20일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화를 차단하는 등 시민들을 고립시켰다. 이에 시민들은 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남도청에 찾아가 군의 저지선을 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차별 사격이 벌어졌다.

이후 무장과 함께 총과 장갑차를 확보한 '시민군'은 군을 몰아내고 전남도청을 장악했다. 이렇게 일주일간 '5·18 수습대책위원회'와 학생 중심의 '학생수습위원회'가 결성됐고 이들은 시내를 청소하고 치안을 유지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성명서 등의 유인물 배포와 시민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시민 쫓겨 대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27일 계엄군의 특공대가 투입된 최후 항쟁이 시작됐고 도청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등 마지막을 준비했다.

#뒤늦게 찾아온 민주화의 봄

5·18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도청 앞에는 희생자의 시신을 담은 관을 뒀으며 입관하지 못한 시신들은 무명천으로 덮여 추모했다. 하지만 최후 항쟁 이후에도 광주의 많은 희생과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자,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된다. 이런 노력 덕에 노태우 정권 당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광주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막상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모습에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 당시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정권에 맞서 하나가 돼 끝까지 싸웠으며 이후에도 진상 규명을 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이로 인한 결실은 시민들이 흘린 피가 절대 헛되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종률의 '님을 향한 행진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

*세월은 흘러가도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우리는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워 민주화의 봄을 피우고 결국 지켜냈던 이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글 - 이서연 기자 tjus1596@sungkyul.ac.kr

[참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로 배우는 우리나라 우리고장, 전북도민신문



95%를 위한 자동차

인류에게서 뗄 수 없는 영원한 숙제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자동차는 현대 첨단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달해 나가고 있는 과학의 결정체다. 이번 호에서는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가 대중에게 보편화되기까지의 깊은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바퀴와 수레의 재발견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말했다. "면 훗날 언젠가 말이나 그 밖의 동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자동 수레를 만들어 지구를 누빌 것이다.". 바퀴가 발명되고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레. 무거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 동물의 힘을 빌렸으나 동물의 힘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구실에서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레를 구상한 설계도가 발견됐고, 당시 과학자들은 이를 본보기로 바퀴와 태양의 원리를 결합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차를 만들며 수동적인 수레의 한계를 극복해나갔다. 이후에도 네덜란드 물리학자 '시몬 스테빈'은 수레에 돛을 달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풍력 자동차를 발명했으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 실패를 겪었고,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증기를 뒤로 내뿜어 나가는 추력 자동차를 구상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최초의 증기 자동차

영국의 과학자 '뉴턴'의 뒤를 이어 많은 과학자들은 증기를 이용한 자동차를 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그렇다면 최초로 증기 자동차를 실현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는 놀랍게도 과학자, 발명가도 아닌 군사기술자 '니콜라스 조셉 퀴뇨'다. 군사 기술자인 퀴뇨는 전쟁터에서 무거운 대포를 쉽게 운반할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을 발견했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굴리는 방식을 이용해 최초로 증기 자동차를 선보였다. 그러나 시험 운전 도중 방향 키와 브레이크가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기에 퀴뇨는 이 점을 보완해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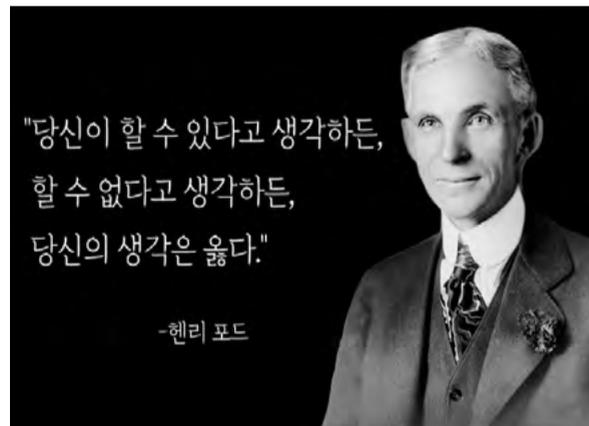


전운동으로 변환시키는 획기적인 발명을 보여줬다. 현대식 자동차의 첫 발돋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칼 프리드리히 벤츠'였다. 그는 ▲내연기관 발명 ▲고출력 2행정 가스기관 제작을 이어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벤츠 자동차'를 설립했다. 동시에 세계 최초로 휘발유 엔진을 이용한 현대식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발명했고, 이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만 했기에 귀족과 부유층만이 탈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5%가 아닌 95%를 위한 자동차

귀족층만 탈 수 있었던 자동차가 현대에 들어서며 대중들에게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의 시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헨리 포드'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진 상황에 말을 타고 이웃 마을에 의사를 부르러 가던 그는 달려도 줄어들지 않는 거리에 절망했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이를 계기로 포드는 말보다 빠른 이동 수단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1903년, 자동차 공장 설립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을 도입해 최초로 자동차 대량생산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보급 가격은 4분의 1로 떨어졌고, 생산시간은 750분에서 90분으로 줄어들었다.



헨리 포드는 말했다. "5프로가 아닌 95프로를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돼 누구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지 못한 꿈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더 빠르게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발명품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과 과학 원리가 발달됨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YTN 사이언스

독자 투고

간섭할 용기

생각보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어찌보면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것이 별 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폭력'의 끝은 용서가 아닌 또 다른 증오와 더 큰 폭력임에 주목했다. 결국 폭력은 그 끝을 모르고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의 고리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4년 전 어느 날, 필자는 아닌 밤중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났다. 늦은 시간에 실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친구였기 때문에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받았던 그 전화는 필자의 가슴에 폭력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심어준 계기가 됐다. "나 아빠한테 맞다가 대들고 집 나왔어. 재워줄 수 있을까?" 울먹이면서도 침착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듣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 사실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육지거리 몇 번에 훌쩍 털어내던 용감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날 받은 전화는 도무지가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가 참을 수 없이 분노했던 그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필자 본인이었던 것 같다. 아이가 '소외받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필자 또한 그 아이를 소외해왔기 때문이다. 아이는 항상 잘못된 것이 없었다. 아이는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께 맞고 계신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을 뿐이다. 필자는 필자의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러가던 그 어슴푸레한 새벽하늘 위에, 아이의 어머니 몸 곳곳에 남은 멍과 비슷한 색깔의 그 하늘 위에 다짐했다. 대신 그 혼자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노라, 하

며. 그 때 본 아이의 얼룩진 얼굴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처럼 선명하게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필자의 다짐은 지킬 수 없었다. 세상은 소외된 이를 더욱 철저히 소외시키고 숨기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끼리만 돌아갔다. 컴퓨터가 있고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희망의 싹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길 권유했다. 한창 사춘기의 고만고만한 다른 아이들은 아이에 대한 소문을 부풀리는 것으로 2차 가해를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한 아이는 죽도록 맞았다. 그리고 시퍼렇게 든 멍을 아대며 숨기던 아이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함구하셨다.

"모순덩어리들."

필자가 악에 받쳐 온 힘을 다해 분노했을 때 고작 할 수 있는 욕이라고는 이게 전부였다. 한껏 부은 얼굴로 대신 화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던 아이는 내가 봤던 미소 중에 가장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순,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한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영원히 폭력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끝도 없이 의심하고, 반론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내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썼다가 휘말리는 거 아냐?'. 휘말려라. 휘말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

이 휘말려야 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론든 정당화되어선 안 돼. 그러니 반격하지 마.'. 피해자에게 정당성을 요구하지 마라. 애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들을 구하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의심하고 반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과연 티끌도 없을까? 적어도 우리는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서 신경쓸 틈이 없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5분이다. 죽어가는 사람도 저 시간 사이에 처치만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기울인 40-50초 관심이 폭력을 당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고, 40-50초의 관심이 40-50년 동안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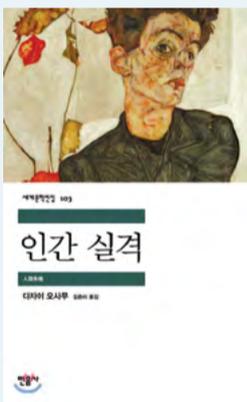
'나도 무서운데...'. 필자도 무섭다. 그러나 순간의 두려움을 타파하게 되는 순간에야 우리는 비로소 모순을 이겨낼 수 있다.

비단 가정폭력뿐만 아니다.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 폭력, 노인폭력 등 우리 주변에 만연한 모든 폭력들에게 우리는 "왜?"라는 반론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익명의 독자-



편집장 노트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랑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연히 서점을 들렀던 보통날, 도깨비 그림 같은 표지에 이끌려서 훑어본 듯이 집었던 그 책은 정신차리고 보니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태였다.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는 첫 문구를 보자마자 나는 책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인간실격'이었다.

필명 '다자이 오사무', 본명 쓰시마 슈지의 삶은 짧고도 기구했다. 현재도 일본 내에서 빼대 있는 가문으로 유명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눈치를 못이겨 몇 번이고 우울의 늪을 건너 자살과 죽음을 꿈꾸는 그이의 자전적 내용을 가득 담은 인간실격은 필자에게 우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우울증이 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어지는 이 질병은 필자를 죽음의 벼랑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다.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때 분, 매 초가 초라함에 눈물로 새벽을 지새고,

人間失格

새로운 날이 당도하는 것이 두려워 24시간을 내리 잤던 적이 있다. 살아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참아내는 것이 익숙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필자는 이 책을 엄지의 지문이 닳아 열어질 때까지 읽고, 읽고, 읽기를 반복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필자의 얼룩진 내일이 참으로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어리석게도 필자는 필자가 타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더 우월하다고 자만했으며, 세상의 모든 중심이 필자로 인해서만 굴러간다고 생각해왔다. 잘난 집안에 태어나 잘난 교육을 받고, 잘난 기회를 제공받은 책의 주인공조차 자신의 과거와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괴로워 했음을 알게 됐을 땐, 필자는 주인공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필자의 부끄러움과 동일하다고 느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완벽주의 강박증은 대상이 누구라고 할 지라도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됐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마무리에 '그럴 수 있지.'라는 문장을 붙이는 것이다.

모든 생각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어 생각이 많아질 땐 머리가 아프다. 약으로도 지울 수 없는 편두통의 대부분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이 깊다는 게 무조건적인 칭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의 증명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필자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주변의 자극에 극히 약한 편이다.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뜻이 아닌, 뒤늦게 생각해도 늦지 않는 작은 생각과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스친 옷깃 하나에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지 아닐지, 필자가 한 말에 웃지 않고 뒤돌아간 이가 필자의 가벼운 한 마디에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등의 소심하고도 세심한 걱정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좋게 받아들인다

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면역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사소한 상황까지 가설을 세우고 신경쓰다 보면 괴로워지는 것은 결국 필자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그럴 수 있지'라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가볍고도 유연한 이 단순한 약속은 필자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다. 상황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끔은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누군가 필자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지."
누군가 필자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지."
누군가 필자를 싫어한다.
"그럴 수 있지."
어떤 상황이 필자를 괴롭게 만든다.
"그럴 수 있지."
어떤 상황에서 필자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획하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행사 따위가 아니다.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절망에 가둘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도 있다. 대상이 누가 됐든시간에 우리네 인생이 으레 그렇듯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게 계속 주문을 걸 테다. "그럴 수 있지!" 하며.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민음사



주간사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임태균 교수
글로벌물류학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의 소설 『전쟁과 평화』(1865~69)는 1812년 나폴레옹군에 의한 러시아 원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시기를 전후한 십여 년 사이의 러시아 사회를 전쟁과 평화라는 양면에서 장대한 규모로 그려낸 역사대작이다. 거대한 전쟁의 스케일을 담아낸 이 소설은 사실 가족과 연인 간의 복잡한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쟁은 주요 인물들의 각성을 위한 도구와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톨스토이

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민중들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좁처럼 종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바라보자.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날로 그 피해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구소련에 대한 항수에 젖어 범(汎)슬라브주의를 천명하며 소비에트연방 재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푸틴의 헛된 망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살상력이 높은 전자와 미사일 등이 동원된 우크라이나 침공의 참상은 이미 소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소설 속에서는 군대 간의 전투의 양상이 그려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강제연행 등의 반인권

적 행태로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생화학전을 넘어서서 핵무기 공격까지 거론되며 사태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손꼽고 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그리고 있는 반전(反戰)의 의미에는 눈을 가린 채 그릇된 애국주의를 읽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독(誤讀)이 아닐 수 없다. 푸틴은 톨스토이가 만년에 비폭력주의에 도달한 점을 깨달아야 한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에 그 원인이 있었다. 불패신화의 전쟁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단 한 번의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것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의 서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푸틴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와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신은 과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며 나폴레옹의 교만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성을 상실한 채 전쟁의 광기에 빠진 자의 최후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에게서도 목격했던 바이다.

전쟁의 어리석음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 소설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라고 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크나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평화로운 시절에 맞이한 전쟁의 소식, 전쟁이라고 하는 반인륜적 비극 속에 전 세계가 휘말려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수칼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김진 교수
융합학부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4번의 산업혁명을 거쳐왔다. 그중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이르렀다. 제1차와 제2차 산업혁명이 육체적인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혁신이라면, 제3차와 제4차 산업혁명은 지적인 노동을 대신할 기계가 만들어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술들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을 가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 등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많

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차지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에는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없는 일자리 1순위는 아이를 돌보는 직업인 보모이다. 적어도 부모들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아이의 감정이나 윤리적인 교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생겨나는 것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 가슴 깊이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무엇이며,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미래 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전문가 관들의 예측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200만개가 새로 생기지만, 대신 710만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2030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약 50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래에 나타날 직업

은 현재와는 전혀 다를 것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 즉, 인간만의 감정이나 지혜, 직관이나 통찰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으로 변형한 꽃을 디자인한다든지, 온라인 가상 파티를 주최한다거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여행과 취미를 주선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직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직업들이 있을까?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창의력과 대인 영향력,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인 관계기술 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래 유망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유망직업군으로는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인터

넷 전문가, 공유 경제 컨설턴트, 로봇 윤리학자, 스마트 의류 개발자, 맞춤형 로봇 개발자, 드론 운항과 관리자, 스마트 도로 설계자, 의료 정조 분석사, 스마트 팜 구축가 등이다. 물론 이들 직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창의력은 갑자기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 과학, 수학 등 모든 학문을 가로질러 통섭하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한다. 넓고 깊은 지식 습득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기르며, 지식을 실천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직업이라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출발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탐승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창의력을 결집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탑승하면 새로운 시대의 승리가 될 수 있다.

독자 한 스푼

상큼히 불어오는 꽃내음에 자리에 멈춰 사진 찍기를 수 차례,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학우들의 꽃놀이!

이번 독자 한 스푼에서는 학우들의 꽃놀이 사진을 소개하겠다!

“ 두근거리는 봄,
어쩌면 그대의 얼굴이
벚꽃색과 같았던 것은
착각이 아니렸다. ”



김유정(정통 20) 학우



손수빈(정통 20) 학우



정우민(정통 20) 학우

· 청춘에 날개를 달아라 ·

블루인

성결대학교
홍보대사



인싸가 되고 싶다면,
드루와!

★ 2022년도 16기 신입기수 모집 ★

지원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우리대학교 1, 2 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주요활동

수시&정시박람회 참여 / 학교 대.내외 의전 활동 참여
전국 홍보대사 연합 ASA-K 활동기회부여 / 학교 홍보물 제작 모델 활동 등

모집기간

2022년 5월 16일(월)부터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접수방법

본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yeonsoo821@naver.com)

문의

성결대학교 홍보미디어센터 (031-467-8998, 재림관(대학본부) 1층)